

〈삼강명행록〉 속 영웅성 발현과 신물의 관계

임현아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교육원 초빙교원, 고전문학 전공

huyee@hanmail.net

- I. 머리말
 - II. 〈삼강명행록〉 속 신물의 특징
 - III. 〈삼강명행록〉에 나타난 영웅성과 신물의 의미
 - IV. 맺음말
-

I. 머리말

대장편소설의 한 주류로 연구된 <삼강명행록>¹은 31권 31책의 장편소설로, 중국의 지리적 정보와 전문 서적의 지식을 기반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기존 대장편소설과 달리 <삼강명행록>은 유교적 이념을 강조하면서도 정난지변(靖難之變)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중국지리서인 『해내기관』을 지리적 배경으로 삼아 중국 명승지와 고적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곳에서 주인공이 감회를 느끼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²

<삼강명행록>의 주인공 사부인은 '열'을, 남편 정흠은 '충'을, 아들 정철은 '효'의 이념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삼강명행록>의 전반적인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 사부인은 정난지변이 일어나자 가족과 헤어져 천하지도를 완성하는 임무를 맡는다. 아들 정철도 천하지도를 완성해야 하는 모친

-
- 1 <삼강명행록>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유일본으로 김기동편 『한국고전소설총서』(7권-13권)에 영인되어 있는 31권 31책의 국문장편소설이다.
 - 2 19세기까지 꾸준히 발전해온 대장편소설은 가족의 문제를 중심으로 가문창달의 서사를 담으면서도 그 안에 적강화소, 영웅의 일생구조 군담화소 및 변신화소, 갈등양상, 기연기봉화소, 혼사장애화소를 담아 장편화를 이루었다(이수봉, 『한국가문소설연구』(경인문화사, 1992), 75-76쪽, 164-181쪽). 그러나 <삼강명행록>은 기존 대장편소설과 달리 '와유'에 대한 갈망과 지리서에 대한 관심의 표출, 외부 세계에 대한 여성의 욕망, 상층 문화의 다양한 문화사적 관심을 표출하고, 아울러 사실적 서사에 치중하면서도 환상성을 구현하여 흥미를 유지하고 있다.(<삼강명행록>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문용식, 「<삼강명행록>연구」, 『국제어문』 제13집(1991); 서정민, 「<삼강명행록>의 교양서적 성격」, 『古典文學研究』 제28집(2005); 서정민, 「<삼강명행록>의 창작 방식과 그 의미」, 『국제어문학』 제35집(2005); 서정민, 「<삼강명행록>을 통해 본 여성의 성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2007); 김동욱, 「고전소설의 정난지변(靖難之變) 수용 양상과 그 의미」, 『古小說研究』 제41집(2016); 임현아, 「삼강명행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19); 임현아, 「<삼강명행록>의 여성 인물 연구」, 『영주어문』 제45집(2020).

사부인을 찾기 위해 사부인과 마찬가지로 중국 각 지역을 돌아보게 된다. 사부인이 방문하는 지역이 자세히 서술되듯 정철이 가는 지역 역시 자세히 나타난다. 정철이 중국 전 지역을 탐방하는 이유는 모친을 찾기 위함이었으므로 인해 <삼강명행록>에서 정철이 ‘효’를 이행하는 주체자임이 강조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정철이 단순히 ‘효’를 이행하기 위한 인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삼강명행록>에서 정철은 ‘효’를 완성하는 영웅적 인물로 변모한다.

대장편소설 속 주인공들의 서사는 대부분이 탄탄한 가문을 배경으로 가부장제이념을 구현하고 가문의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통속적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무너진 가문을 회복하고 위기에 빠진 임금과 나라를 구해 부귀공명을 얻는다. <삼강명행록>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보이는 인물은 주인공 사부인의 아들 정철로, 이 작품에서 정철이 보여주는 영웅화는 ‘효’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 <삼강명행록>에서 정철은 가문의 완성을 위해 헤어진 모친을 찾아 ‘효’의 이념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문의 창달에 대한 서사가 강조되지 않으며 가문과 국가 및 임금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충’의 요소도 빼앗긴 임금의 자리를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주인공 정철은 헤어진 모친을 찾기 위해 중국 전역을 떠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효’와 ‘충’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영웅성을 갖추어 나간다. 영웅소설에서 남성 주인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욕망은 위기에 빠진 국가와 사회를 재건하고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는 과정에 애정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³ <삼강명행록>의 정철에게도 영웅소설의 남성 주인공과

3 안기수는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그 시대의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선한 인물로 제시되며 당대인들이 추구하는 욕망을 가장 이상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대리자여야만 한다고 하였다. 선의의 인물인 주인공의 성격과 욕망은 세속화되어 국가와

대장편소설 속 영웅적 인물이 갖는 영웅성이 상당 부분 발현된다.⁴ 그러나 기존의 영웅적 인물과 다르게 정철이 맞는 고난에는 효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의 비중이 크며 적대자와의 싸움으로 인한 부분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삼강명행록>의 주인공인 정철이 모친을 찾기 위해 중국 각 지역을 돌면서 요괴 및 환상계의 존재들을 만나는 체험이 부각되는데 이때 각종 신물을 얻는 과정에서 그의 인물됨이 강조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삼강명행록>에 나오는 신물은 정철이 영웅적 인물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정철이 유교 이념을 완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기능한다. 여타 영웅소설 속 영웅적 인물들은 적대자와의 싸움이나 전쟁 상황, 요괴와 대적했을 때 승리하기 위해 도술이나 신물을 사용하며, 신물의 쓰임은 거기에서 효용을 다한다. 신물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주인공의 능력을 향상시켜 싸움을 승리로 이끌지만 그 이후의 신물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삼강명행록>에서 신물은 싸움의 요소로만 사용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삼강명행록>의 신물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의 윤리도덕성 회복, 몰락한 가문창달, 분리된 가정회복, 애정 성취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남성 주인공이 추구하는 욕망이 당대의 현실적 문제와 관련됨에 따라 후대로 내려올수록 주인공이 추구하는 관심의 대상은 국가→사회→가정→개인적 욕망성취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지향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탁월한 영웅성을 발휘하여 성취한다고 하였다(안기수,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보고사, 2004), 53-54쪽).

- 4 한길연은 대장편소설과 영웅소설의 차이를 구조적 차이 외에 이계공간의 체험의 유무와 수학 여부, 조력자에게 구원받는 것과, 남주인공이 유람하거나 출정(出征)하는 장면에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식의 환상 체험, 그리고 초현실적 존재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찾았다(한길연, 「영웅소설과 대하소설의 주인공의 환상 체험의 차이와 그 의미」, 『한국문화』제42집(2008), 90-95쪽). 또한, 대장편소설에서는 환상계를 남주인공이 관리하고 규제하는 대상으로 삼는 한편, 현실 체제의 모순을 봉합하고, 옹호한다고 하였다(한길연, 「대하소설의 환상성의 특징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20집(2010), 485-486쪽).

영웅적 인물로서의 정철을 알아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정철이 얻게 되는 신물을 모친을 찾는 과정에서 얻는 신물과 건문제를 지키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물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아울러 <삼강명행록>의 신물이 기존 영웅소설 속 신물과 어떤 차이가 있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정철이 신물을 획득하는 과정과 그 신물이 영웅적 인물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삼강명행록>에 나타나는 여러 신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철의 영웅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삼강명행록>에서 나타내고자 한 영웅적 인물의 본질을 밝히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삼강명행록> 속 신물의 특징

1. ‘효’의 완성을 위한 신물

영웅소설 속 주인공 대부분은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 범인과 다른 탁월한 능력을 지니며 어려서 기아(棄兒)가 되어 죽을 고비를 겪는다. 이후 조력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 다시 위기에 처하지만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자가 된다.⁵ 이처럼 영웅적 인물은 잠재적 능력을 타고 태어나 위기를 겪지만 결국은 구국의 영웅이 되어 개인의 영화를 누린다. <삼강명행록>의 정철도 비범한 인물로 태어난 것이 강조된다.⁶ 다만 그의 비범성과

5 조동일,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東亞文化』 제10집(1971), 169쪽.

6 정철이 뛰어난 인물임은 그의 탄생부터 시작되는데 사부인은 문창성을 삼키는 꿈을 꾸고 아들 정철을 낳는다(총서 7권: <삼강명행록> 권지이, 291쪽).

영웅성은 '효'의 이행과정에서 드러난다.

부모에 대한 정철의 '효'는 정난지변으로 인해 헤어진 부모를 찾아 가문의 완성을 이루는 것으로 이행된다. 이는 정철의 모친인 사부인이 지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과업을 완수해야 가족과 만날 수 있다는 천명과 일맥상통한다. 즉, 사부인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는 중국 전역을 돌며 천하지도를 완성해야 하고, 정철은 모친 사부인을 찾아야만 효를 실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철의 본격적인 서사는 정난지변 이후에 펼쳐지는데, 이때 눈에 띄는 점은 정철이 일찍부터 조력자를 만나 부모의 행방을 찾게 된다는 점이다. 정철 남매가 부모와 이별한 후 연왕으로 인해 경사에 변이 크게 났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해 하던 차에 니고(尼姑) 청원이 부친 정흡의 명으로 그들을 데리러 왔으며 모친이 울양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정철을 부모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한다.⁷ <삼강명행록>의 서사가 사부인이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었으므로 정철이 모친을 찾는 과정은 길게 진행되지만 정철과 부친 정흡의 만남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비교적 일찍 이루어진다.⁸ 정철이 부친 정흡, 그리고 건문제와 비교적 일찍 만난 것은 건문제를 따르는 신하들을 새로운 땅인 '천태'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즉, 정철은 서사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임무를 맡게 되는데 하나는 사부인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흡과 건문제의 명에 의해 건문제를 따르던 신하와 그의 기술들을 '천태'라는 새로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철이 서사 전반에 걸쳐 '효'를 이행하는 대상은 궁극적

7 총서 7권: <삼강명행록> 권지삼, 514-515쪽. “문득 밧그로서 흐 녀승이 드러와 압히셔 굴오티 “한넙 상공이 앓가 성문을 나시며 쇼승을 만나 퍽똥의 와 공즈와 쇼겨를 뵈셔 오라하시더이다” 공지 놀나며 밋디 아닌대 니피 굴오티 “부인이 놀양 짜히겨시다 호고 흐티로 모다 산곡 간의 숨으랏 밋비 가 드러오라” 흐시니”

8 정철은 여승의 말에 따라 남쪽으로 향하다가 사빈을 만나 부친과 건문제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직접 전해 듣지만 모친의 소식은 듣지 못한다(총서 7권, <삼강명행록> 권지삼, 521쪽, 553-554쪽).

로 모친 사부인이 된다.’ 결국 <삼강명행록>에서 정철이 ‘효’를 이행하는 대상은 사부인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부친에 대한 ‘효’와 건문제에 대한 ‘충’의 이념은 부차적인 것으로 진행된다.

정철은 모친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신물을 얻는다. 영웅적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물 획득이다. 기존 영웅소설에서 영웅적 인물들이 얻는 신물들은 대개 병서, 천서, 갑주, 장검, 용마 등인데 대부분이 싸움에 필요한 것으로, 주인공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싸움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쓰인다. 그러나 정철이 얻는 다양한 신물들은 정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전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행방을 모르는 모친을 찾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얻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중 정철이 가장 먼저 얻게 되는 신물은 석장, 운니, 갑마이다.

신이 샐레하여 고평오디 “청원 스뵈 우리 남리의 목숨을 구하고 쏘 쇼지 올
새의 날오디 공직 도로의 거리 헝키 어려울 거시니 내 오라비 청심 대신
스싱의게 어든 초혜 흔 빵이 이셔 일흠이 천니 부운니” 그를 신으면 흐르
능히 천 니를 가고 그치며 헝헝물 쏘흔 므옴의 싱각는대로 흐고 낯흔 피와
깊흔 굴형의 거름이 늑는 듯하여 천만 니를 가도 굿브미 업스며 쏘 억만
년이라도 하여지는 일이 업고 쏘흔 막대이셔 일흠은 구환 석당이니 돌흠
두드리면 쌀과 금이 나고 남글 두드리면 불이 나니 이는 다 부터의 보벽오
진짓 원헝흔는 사름의 가질 배라 헝혀 도로의 만나미 잇거든 지성으로 빌면
빌니리라 흐던 거시니 스뵈 능히 빌닐소냐”¹⁰

9 정철이 부친 정흠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사에서 정흠과 정철 관계는 정철이 건문제를 따르던 충신과 그의 가족들을 인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흠도 아들 정철이 건문제의 신하를 찾아오는 것을 독려한다.

10 총서 7권: <삼강명행록> 권지삼, 558-559쪽.

위의 인용문은 정철이 청심을 만나 신물을 얻게 되는 장면이자 신물의 쓰임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청원은 정철이 청심에게 얻어야 할 물건들과 그 쓰임새를 설명한다. 또한, 정철이 얻게 될 신물이 정철의 소유가 아닌 다른 이로부터 빌려 쓰게 될 것을 언급하기도 한다. <삼강명행록>에서 정철이 청심에게 가장 먼저 얻게 되는 신물들은 먼 곳을 오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정철의 여정이 쉽게 끝나지 않음을 예견하게 한다.

이처럼 정철은 부모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조력자를 얻게 되며 그들에게서 부모를 찾는 데 필요한 도구를 얻는다.¹¹ 정철은 청심에게 부운리와 석장 얻기를 청하는데 청심은 자신에게 그 물건들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정철에게 부모를 찾으려면 십만 리 밖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풀신이 아니라 강 위에 떠 있는 가죽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들은 정철이 강물에 떠 있는 신을 건지기 위해 물에 뛰어 들고 청심의 도움으로 어렵게 신을 얻는다. 청심의 도움으로 물 밖으로 나온 정철이 신을 신으니 정철에게 딱 맞고, 청심이 건넨 막대가 상서로운 물건인 것을 안 정철이 석장을 빌리기를 청한다. 이때 청심은 정철에게 부운리와 같은 갑마가 있는 곳을 알려주며¹² 영안과 함께 먼 길을 오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정철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준다.

11 정철이 청심으로부터 얻는 석장은 일찍이 건문제의 신하 우경선이 건문제를 위해 갖기를 원했다. 그러나 청심이 석장의 주인이 정철이며 그가 도를 닦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예언을 함으로써 정철이 장차 도술을 얻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총서 7권: <삼강명행록> 권지삼, 459-460쪽).

12 정철은 청심이 일러준 대로 갑마를 보관하고 있는 노파의 집에 찾아가 숨겨둔 갑마를 얻는데, 이때 영안은 노파에게 연왕이 경사를 장악했다는 소식을 들려주고 노파가 놀라 통곡하던 때를 타 빼앗아 달아난다(총서 7권: <삼강명행록> 권지삼, 563-567쪽). 갑마는 부운리와 같이 먼 길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것으로 정철이 부운리, 석장, 갑마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모친 찾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정철이 얻게 되는 것은 사부인이 가지고 있던 삼불취보경이다. 정철은 물가에서 ‘**츠는 잇는 재 소원을 일우는 보경**’¹³이라 쓴 피갑을 건져 올리는데 이 취보경은 사부인이 동생 사시랑에게 준 것이었다. 그러나 취보경은 사시랑이 충절과 효가 없는 인물임을 꾸짖고 충의지인을 찾아간다고 이르고 사라진다.¹⁴ 본래 취보경 위에는 붉은 글자로 효녀 사씨에게 준다고 써 있었다.¹⁵ 처음 취보경이 효녀 사씨에게 있었고 이후 정철에게 전해진 것은 정철의 효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웅적 인물이 얻는 신물이 효를 강조하는 데에 쓰였다는 것이 주목된다.

한편 정철이 모친을 찾으러 다니며 보여주는 신물들은 ‘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것들도 있다.¹⁶ 그런데 여기에서 신물을 얻는 과정을 세세하게 드러내고, 정철이 그 신물의 주인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신물들이 정철이 사부인을 만나는 데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정철이 얻은 대부분의 신물들은 마지막에 모친을 만나기 위한 세 번의 시험에 모두 쓰인다. 정철이 모친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어 탄식할 때 백의서생(백룡)이 나타나 모친을 만날 기한이 되었다고 하며 천태산 무릉계 도화원에 가 곤경에 처한 모친을 구하라고 일러준다.¹⁷ 그러나 그곳에서도 모친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

13 총서 10권: <삼강명행록> 권지십사, 528쪽.

14 취보경이 본래 사시랑 집에 있었던 것은 사부인의 효우 때문이었으며 사시랑이 출사 후 정난지변이 일어난 후에도 충절과 효를 지키지 않고 헤어졌던 동기인 사부인을 찾지 않음을 꾸짖는다. 취보경은 이어 충의지인을 찾아간다고 이르고 사라진다(총서 10권: <삼강명행록> 권지십사, 530-533쪽).

15 총서9권: <삼강명행록> 권지팔, 199-200쪽.

16 정철이 월나라에 이르러서는 월나라에 돌던 전염병을 보경과 보도로 치유한다(총서 12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사, 525-527쪽). 그리고 선도를 닦은 노인과 학문과 선가의 비기 및 도술의 근원을 주고받은 후 노인으로부터 달뜨는 광주리와 표주박을 선물 받는다(총서 12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오, 660-661쪽).

17 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육, 49-51쪽.

다. 정철이 심마니를 따라 산에서 나온 후 약초 캐는 늙은이를 만나는데 그 늙은이가 기장군의 마을로 가 모친의 행방을 물어보라고 이른다. 정철이 기뻐하며 그곳에 이르지만 두 역사(力士)가 장창과 대도를 들고 마주 서 문을 지키고 있었다.

① 싱이 녀스의 압히 나아가 직비하고 장군귀 뵈기를 청하니 녀식 눈을 부릅써 꾸지저 굴오되 “너는 옛던 속각이완되 이에 드러왔는다” 싱이 지삼 비되 허티 아니커늘 비로소 횡장을 열고 농문 보도를 내야 장군귀 뵈는 네물을 삼고 푸개를 거홀너 횡장의 은을 다 내여 두 녀스의게 드리고 뵈기를 구헌대 비로소 허야야 일인이 드러가니 나와 명을 던히되 “네 만일 날을 보고져 홀딘대 종누의 돌복을 쳐 소리 나면 내 너를 브르리라” 싱이 북채를 구헌대 녀식 쇼왈 “이 석종이 던야야 날오되 우지 아년 지 수빅 년이라 우리 모리 텃되로 쳐도 소리 나지 아니하느니라” 인히야 녀식 텃되로 두드려 뵈니 조금도 소리 업더라 싱이 하늘을 우러 ” 빌고 절히야 굴오되 “텃되 만일 쇼즈로 하야곰 모지 서로 만나리라 하시거든 이 북이 소리 나쇼셔” 하고 두 주먹으로 두드러니 소리 수 리에 들니더라 녀식 놀나 비로소 문을 열거늘¹⁸

② 싱이 또 처음 텃장군귀 뵈기를 청하니 녀식 당목시지 하고 부답이어늘 횡등의 보모로써 장군귀 뵈는 네물을 삼고 영안의 두 갑마로써 두 녀스를 주니 이윽고 드러가더니 나와 장군의 말을 던히되 “네 만일 날을 보고져 하거든 그 가마를 움겨노흐라” 싱이 앙턴 탄식하고 영안이 나아가 보고 니즌 자리 태산을 거음 곳더라 싱이 셋넉홀 향히야 모든 부터틀 넘히야 빌고 석당으로 써드니 능히 흥 간 동안을 움겨 노홀너라 녀식 더욱 놀나 문을 열거늘 계유 쏘흔 문을 드니 쏘 눅흔 문이 잇고 두 녀식 각 ” 부월을 잡고 셋는다¹⁹”

18 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육, 58-59쪽.

19 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육, 60-61쪽.

③ 싱이 홀 일 업서 태양경으로써 장군과 드리는 네물을 삼고 운니와 석당으로써 두 녀스의게 드린대 이는 생이 모친을 만나지 못하며 다시 이 문을 나지 아니려 모습의 땡세하고 형장을 다 파하는 뜻이라 녀식 비로소 드러가더니 나와 장군의 말을 던하야 날오되 “네 만일 날을 보고져 하거든 석스직 다리를 쏘게 하라” 싱이 즉시 턴티 산녕의게 비니 빌기를 마츠며 좌우 석스직 두 무릅홀 쑤더라 비로소 문을 크게 열거늘²⁰

④ 장군이 당상의서 크게 소리하야 성명을 못고 네 날을 보고져 하거든 밤이 장춧 어두어시니 붉은 돌을 어더오라 이쎄 구월회간이라 어이 들이 이시리오 싱이 다만 형똥의 표즈 하나만 남앗더니 싱이 표즈를 츠자 두루며 당경의 마르친 비결을 헝하니 이윅고 둥근 돌 빛치 조요하더라²¹

위에 언급된 인용문은 정철이 마지막에 모친을 찾기 위해 그동안 얻은 신물들을 기장군 마을의 관문을 지키는 역사와 장군에게 바치는 내용이다. 신물들은 모친을 찾기 위해 먼 거리를 오갈 수 있게 청심에게 받은 운니와 석장, 그리고 정철이 파사국 오랑캐를 도와주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보모(寶母)²², 모친을 찾다 황산에 이르러 현원 황제 승선대 아래에서 얻은 보도와 태양경²³, 선도를 닦은 노인과 학문과 선가의 비기 및 도술의 근원을 주고받은 후 노인으로부터 받은 표주박이다. 이 신물들은 애초에 정철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설명되며 정철이 사대부가의 학식이 풍부한 인물을 넘어 신이성(神異性)을 가진 인물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여러 신물을 얻은 정철은 마지막 모친을

20 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육, 61-62쪽.

21 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육, 62-63쪽.

22 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육, 40-41쪽.

23 총서 12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사, 540쪽.

만나는 관문에서 문을 지키는 역사들로부터 시험을 당한다. 이는 정철이 모친을 찾는 과정에 꼭 거쳐야 할 고난이자 일종의 통과례²⁴로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 보이듯 역사는 정철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에게 신물을 요구하면서 어려운 과제를 부여한다. 정철이 모친을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무릉계 도화원으로 백룡이 가르쳐 준 곳이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조상이 당나라 백성이었고, 오대 시대에 난을 피하여 떠돌다 이 땅에 들어온 후부터 땅의 경계를 끊어 바깥세상과의 소통을 끊고 지냈다. 즉, 이들이 사는 무릉도원 자체가 현실 세계와는 다른 공간이다. 그런데 그곳의 또 다른 공간인 기장군 마을은 심지어 높은 담과 단단한 철벽으로 둘러싸였으며 역사가 지키는 곳이었다.²⁵ 이로 볼 때 기장군 마을을 공간적인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정철이 하나의 세계를 떠나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직접적인 통과례를 거쳐야 하는 곳²⁶이다.

-
- 24 통과례는 이론적으로 境界前 儀禮(preliminal rites=분리의례)·境界儀禮(liminal rites=과도의례), 境界後 儀禮(postliminal rites=통합의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범주는 민족이나 의례유형에 따라 발달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Arnold Van Gennep(저), 서영대(역), 『통과의례』(인하대학교 출판부, 1986), 13-14쪽). 민선홍은 민담 『구렁덩덩 신선비』와 『두꺼비 신랑』을 결혼 후 통과례담의 분리·전이·통합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는데 친족집단을 떠나 시집·처가로 이동하는 분리, 낮은 위치에서 처하게 되는 전이, 신부와 신랑이 공인되는 통합과정으로 살펴 보았다(민선홍, 「민담 『구렁덩덩 신선비』와 『두꺼비 신랑』의 비교」, 『口碑文學研究』 제56집(2020), 13-14쪽). 이처럼 <삼강명행록>에도 정철이 기장군 마을에서 영웅적 능력과 신물로 '효'를 인정받는 일종의 통과례담이 나타난다. 모친을 찾기 위한 정철의 여행 탐색은 이전의 삶과 격리되어 모친이 있는 영역으로 이동하는 분리의례이다. 이어 자신의 영웅성과 '효'를 입증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정철이 기장군 마을에 도착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서 겪는 시련과 시험은 과도례를 나타내며,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여 '효'를 이행하는 주체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해 내고 모친과 재회하는 것은 통합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5 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육, 57-58쪽. “뉘흔 담이 두어 길이니 털용금성 깃고 불근 세 층문이 엄숙하며 두 녀시 당창과 대도를 들고 마조 섯고 것깃 좌우의 삼층 고루와 삼층 풍누를 베프고 가운데 큰 돌북을 노화시니 위터 숨엄히더라”
- 26 통행의 금지를 상징화한 문으로 성문, 도시의 특정구역을 에워싸고 있는 벽의

위의 인용문에 보이듯 사부인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일 일종의 예물(禮物)로, 신물은 바로 새로운 문을 통과하기 위한 교섭단계에서 필요한 물건이다. 그런데 문을 통과하는 시험은 신물을 바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철은 문을 통과할 때마다 어려운 시험까지 받게 된다. 즉, 신물이 기장군 마을의 장군을 만나기 위한 예물로 쓰였다면, 문을 넘기 위해서는 정철의 영웅적 자질을 드러내기 위한 직접적인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시험은 정철이 비범한 인물임을 증명하며 동시에 모친을 만나기 위한 정철의 간절함을 드러낸다. 정철은 돌북을 쳐 소리를 내야 하고, 태산과 같은 가마를 석장으로 들어 옮겨야 하며, 석사자의 다리를 꿇는 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보통의 평범한 인간이 해내기 어려운 시험이다. 그러나 정철이 모친을 만나기 전 문을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정철이 해결하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짐을 강조한다.²⁷ 즉, 정철이

문, 집안의 문이 있으며 문이란 보통의 집의 경우에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와 외부세계와의 경계이며, 사원의 경우 신성한 세계와 세속적 세계의 경계라고 하였다(Arnold Van Gennep(저), 서영대(역), 앞의 책(1986), 24-25쪽).

- 27 정철이 시험받는 모습은 민담 「구렁덩덩 신선비」와 「바리데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렁덩덩 신선비」에서 셋째 딸은 남편을 찾기 위해 빨래를 해주고, 눈을 갈아주고, 까치의 새끼를 길러주어야 남편이 있는 곳을 알게 된다. 이후 물 길어와 붓기, 호랑이 눈썹 뽑는 등 신선비가 얻은 후처와 시험을 치루는 내용이 펼쳐지는데 이는 결연의 금기를 어긴 색시가 결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다(조홍윤, 「설화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를 통해 본 '관계 맺음'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제43집(2016), 214-216쪽). 그리고 「바리데기」에서 바리데기가 서천서역을 가는 길을 알기 위해 발을 갈아주고, 검은 빨래를 희게 하고, 더러운 걸 묻혀 흰 빨래를 검게 하는 시험을 받는 내용은 각기 인물들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고, 시험을 거쳐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바리데기가 겪는 고난은 '효'의 실천으로 이어지는데(강준수, 「<바리데기>에 나타난 서사 유형 고찰」, 『인문학연구』 제55집 2호(2016), 5쪽) 마찬가지로 <삼강명행록> 속 정철이 서사 전반에 뛰어난 인물로 표현되면서도 모친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마지막 세 역사의 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친을 만나기 위해 받는 시험은 정철의 ‘효’를 시험하는 것으로, 시험을 통과해야만 모친을 만나 효의 이념을 완성할 수 있으며 이때 정철이 궁극적으로 바라던 가문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²⁸ 그렇기 때문에 <삼강명행록>에서 정철이 고난을 겪는 가장 심각한 때가 바로 모친을 만나기 전 세 역사에게 시험을 받는 때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정철이 모친을 구하기 위해 역사들에게 바쳤던 신물들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다시 정철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정철이 마지막으로 규염 장군에게 시험을 받아 모친을 구한 곳은 관음원이었고 시험을 낸 역사들은 금강신, 사졸들은 화상들이었다.²⁹ 규염 장군으로 변해 정철의 효를 시험한 청원이 정철과 그와 함께 다니던 영안에게 보물들을 모두 다시 거두어 가라고 하지만 오히려 정철은 이 보물들을 절에 보시하겠다고 말한다. 이제 모친을 찾았으니 이러한 신물들이 정철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밤이 되어 찾아온 청심은 정철에게서 석장과 운니를 돌려받고 갑마는 영안에게 주어 영안이 정철의 부친 정흠이 있는 곳을 오갈 수 있도록 한다. 정철이 보도, 태양경과 보모를 청원에게 주어 절에 보시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청원은 보도를 정철에게 주며 훗날 길을 오갈 때 쓰고 자손에게 전해주라 이른다.³⁰ 그리고 보모는 정철이 원주인이라며 영안에게 보모를 주어 그의 공(功)을 치하하고 차생에 부귀하게 하라고 한다.

28 정철의 지원은 부모 곁을 지키는 것이며 충효 가문이 되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정철은 가문 내의 모친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친인 사부인이 현실 세계를 벗어나 선계에 남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부모가 지상에서 화합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임현아, 앞의 논문(2019), 137쪽). 그러므로 정철이 모친을 찾아 ‘효’를 완성하는 것은 곧 가문의 완성을 뜻한다.

29 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육, 72-73쪽.

30 이 외 태양경과 달뜨는 광주리(표주박)는 이후 사부인과 정철 일행이 중국 밖 18개 異國 중 하나인 안남국을 여행할 때도 사용한다(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팔, 314, 316쪽).

작야스를 서르 니로고 석식 진실노 꾸러시며 년왜지경을 썬갓고 석괴 다시
울미 이시니 이는 진실노 지효의 소감시오 천지의 고적이 될디라 흥가지로
보자 흥고 두 대신 서르 손을 잇그러 나가거늘³¹

위의 인용문은 청원과 청심이 정철이 역사들의 시험을 통과한 일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두 대사는 석사자가 무릎을 꿇었고 돌북의 소리가
넓고 컸으며 가마가 옮겨졌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지극한 효성시오, 오랜
세월의 고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정철의 ‘효’의 과정은 결국
마지막 시험을 통해 그가 ‘효자’임을 증명해 내었으며 이는 <삼강명행록>에
서 내건 유교적 이념의 실천에 부합된다.

이전 영웅소설 속 영웅들이 얻은 신물들은 주인공을 비범한 인물로
변화시켜 나라를 구하는 일세의 영웅으로 만드는 것을 도왔다. 반면 <삼강
명행록>에서 정철이 얻게 되는 다양한 신물들은 모친을 찾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겪어야 할 통과의례에 해당하는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삼강명행록>에서 정철은 천하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중국 곳곳
을 다녀야 하는 사부인을 찾는 인물이다. 정철이 사부인을 찾는 마음은
곧 ‘효’를 의미하며 이때 정철이 모친을 찾기 위해 얻는 신물들과 영웅적
능력은 ‘효’를 실천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발휘된다. 따라서 정철이 획득한
신물들이 마지막에 모친을 찾는 데 대부분 쓰인 것은 정철의 서사가 ‘효’를
강조하는 데 지향점이 있으며 나아가 ‘효’를 완성하는 것이 곧 영웅적
행위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1 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육, 81쪽.

2. '충'의 실현을 돕는 신물

고전소설 속 영웅들은 국가와 임금을 위기에 빠뜨리는 오랑캐나 간신배들을 처단하는 것으로 '충'의 이념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임금의 자리를 지켜낸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삼강명행록>에서 정철은 '효'를 강조하는 인물로, 그가 행하는 대부분의 영웅적 행위는 모친을 찾는 과정에서 발휘되었으며 그가 얻은 대부분의 신물들도 모친을 찾는 데 쓰였다. 물론 <삼강명행록>의 서사에서 건문제 일행이 영락이 보낸 수하들과 도적무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정철이 건문제를 뒤쫓던 무리와 대적하기도 하고 건문제를 따르던 신하들을 위험에서 구하면서 정철의 영웅성이 발휘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사가 사부인의 천하지도 완성을 위한 중국 여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철이 모친을 찾는 서사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정철이 직접적으로 건문제에게 '충'을 나타내는 서사는 많지 않다. <삼강명행록>에 나타나는 '충'은 영락에게 빼앗긴 임금의 자리를 건문제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다. 정난지변이 일어나자 건문제를 따르는 충신들은 임금에게 죽음이 아닌 목숨을 보존하는 새로운 천명을 받아들여 사해(四海)를 운유(雲遊)하는 삶을 살 것을 간곡히 청한다. 이들의 충심은 건문제를 살게 하는 것이며 그들이 건문제와 함께 하는 여정의 목표는 건문제의 복위를 도모하고 복수증흥을 꾀하는 것이 아닌 건문제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다.³² 따라서 정철이 보여주는 '충'은 임금의 자리가 영락에게 넘어간 것을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건문제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찾아 건문제를 따르는 신하들 및 그의 가솔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32 임현아, 앞의 논문(2019), 23-24쪽.

하는 길잡이 역할로 표현된다.

앞서 정철이 얻은 신물 대부분은 정철이 모친 사부인을 찾는 과정에서 쓰였다. 정철이 신물에 적합한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여러 신물을 얻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또한, 신물은 정철 개인의 영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했지만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나타내거나 마지막에 모친을 찾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신물 대부분이 ‘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쓰이는데 정철이 보여주는 유교적 이념이 ‘충’보다는 ‘효’를 강조하여 나타났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이 기존 영웅소설의 신물들과 변별된다.

한편 ‘충’과 관련한 신물은 많지는 않지만 건문제와 관련된 서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때의 신물은 정철의 영웅적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물들이 정철이 어머니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건문제에게 임금의 자리를 되찾아주거나 위협에 빠진 건문제를 구하는 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죽일 데의 군신이 교를 쓴 후 급히 퇴출 너무며 들홀 에워 즈허관의 오시니 이 저녀의 동덩군이 두어 종자를 거느리고 관동의 와 데기 뵈옵고 턴은을 속사하고 칭의게 고두하야 은혜를 샐레흔 후 종자를 불너 메여온 됴을 드러 빅옥 상황 금쇄약의 여섯가지 보비로써 데기 드러 동화군기 던히게 하니³³

위의 내용은 정철이 동정호를 어지럽히던 교룡을 죽인 후 동정 용왕으로부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받는 장면이다. 정철이 건문제를 모시고 다니던 중 영웅성을 발휘하는 서사는 크게 두 번 나온다. 첫 번째는 마령 땅에서 도적떼에게 위협을 받는 때이고³⁴, 두 번째는 동정호에서 교룡을 처치하는

33 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칠, 184-185쪽.

34 이 서사에서는 정철이 아닌 주량과 옥호의 활약이 돋보인다. 이때 특이하게도 정철의 영웅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주량과 옥호가 건문제를 구함으로써 건문제의

때이다. 동정호를 지나는 때에 두 교통의 싸움으로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한 것을 정철이 글을 지어 풍랑을 잠재운다. 이 서사에서 교통이 건문제 일행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 이후 수부(水府)에서 정철이 보경을 내어 그 위에 주사(朱沙)로 글을 써 동정호의 싸움이 멈춘 것을 알고는 정철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동시에 도망간 교통을 잡기 위해 정철에게 또다시 도움을 받고자 건문제 일행을 찾는다. 그러나 정철은 자신이 먼저 나서지 않는다. 건문제가 정철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뜻을 묻고 그때서야 정철은 건문제의 가르침에 따르겠다고 한다. 이때가 <삼강명행록>의 서사에서 정철이 건문제의 명에 의해 영웅성을 발휘하는 때이다.³⁵ 결국 정철이 보경에 글을 써 교통을 물리치고 이에 용왕이 은혜를 갚기 위해 건문제에게는 여섯 가지 보물을, 정철에게는 네 가지 보물을 건낸다. 건문제가 동정 용왕으로부터 받은 여섯 가지 보물은 천태를 다스릴 건문제의 아들 문규에게 전해져 천태를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과 건문제가 유람을 하는 데 있어 그를 지켜줄 것들이었다.³⁶ 반면 정철이 받은 선물은 ‘여의보주’, ‘옥인’, ‘채상구’, ‘뇌공석’으로 정철의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면서 영웅성을 더욱 견고히 해줄 수 있는 것들이다.³⁷

인정을 받아 주랑과, 옥호는 정철과 결연을 맺는다(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칠, 170-171쪽, 177-178쪽).

- 35 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칠, 182쪽. “네 심을 도라보아 가부들 무르신대 심이 덕왕 “상교대로 흐리이다” 네 가연이 허허서 왈 “내 명일 당” 이 털을 드려 이 사오나온 짐승을 잡는 냥을 볼 거시니 네 맛당이 그 잇는 고줄 아라 그르치라” 하시다”
- 36 건문제가 받은 여섯 가지 보물은 ‘현황 천부’, ‘옥계’, ‘곡벽’, ‘왕모 옥환’, ‘홍말갈’, ‘낭간주’였다. 현황 천부는 인간의 병, 전염병, 병의 기운이 스며들지 못하고, 옥계는 왕자가 효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곡벽은 왕자를 얻으면 풍년을 들게 하고 왕모 옥환은 왕자를 얻으면 외국이 귀순하게 하고 홍말갈은 부처의 기운이 있어 악인과 맹수, 흉악한 짐승이 범하지 못하고 낭간주는 후세에 자손이 천하를 회복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칠, 185-186쪽).
- 37 여의보주는 만사 뜻을 이룰 수 있고, 옥인은 사람과 귀신과 상하 신령과 수부

건문제와 관련하여 새로 받은 신물은 정철이 모친 사부인과 재회한 이후에 얻은 것으로 건문제에 대한 ‘충’의 실현을 보여준다. 이때의 신물들은 건문제와 그의 신하들, 정씨 집안 사람들이 새로 자리잡은 땅인 천태가 더욱 풍요로운 터전이 될 것임을 나타내고 아울러 정철의 영웅성이 더욱 뛰어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진군이 급〃 ㅎ야 ㅎ ㅁㄷ 소리를 ㅎ더니 ㅅ학 ㅎ ㅅ이 ㄴ라 계하의 ㅅ니
 진군이 줄연이 풀을 썰치더니 구릅스매 ㅎ 복이 ㅅ치지며 몸이 ㄴ라 학의
 등의 오르니 청의동지 ㅅㅎ 학을 ㅅ고 ㅎ기 ㄴ라 적성을 ㅅ쳐 동으로 만
 니 ㅅ갈 나라가니 ㅅ고 ㅅㄷ ㅅ과 사슴은 오히려 그져 잇고 스매에서 ㄴ여
 ㅅㄷ ㅅ이 오히려 ㅅ안의 그져 노혔거늘 군신이 ㅎ가지로 ㅅ보니 이 다 ㅅ셔라
 아모도 알 니 업더니 ㅅ털이 고왈 “신이 전일 왕옥산의셔 목을 제 ㅅ운동
 ㅅ의셔 하진인이란 도스를 만나 ㅅ셔 일 권을 ㅅ호니 이러모로 하늘 글즈를
 아ㄴ이다”³⁸

위 장면은 천태를 다스리던 선관 현주 선백이 내려와 태자 문규에게 천서를 건넨 후의 장면이다. 정철이 직접적으로 천서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철이 아니면 누구도 그 천서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천서로 인해 정철의 비범함이 또 한 번 인정받는다. 이때 정철은 자신이 백운동 하진인이라는 도사로부터 이미 하늘의 글자를 배웠다고 밝힌다. 현주 선백이 자신의 뒤를 이어 문규가 천태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자 문규가 자신은 우매하여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현주 선백은 이 땅을 지키는 신령이 있고

교룡을 항복시킬 수 있으며, 채상구로는 일 년에 길이 만 필의 비단을 얻을 수 있고 뇌공석으로는 요사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총서 13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칠, 187-188쪽).

38 총서 11권: <삼강명행록> 권지십팔, 412-413쪽.

정철이 있으므로 여러 신들과 다 통할 수 있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어 정철이 현주 선백에게 건문제와 문규의 앞날을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지만 아무도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현주 선백이 주는 천서는 건문제와 문규가 천태를 얻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그들 곁에 정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천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사람의 재주를 뛰어넘어 신선 또는 하늘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철만이 읽을 수 있다는 ‘천서’는 정철의 영웅성을 강하게 나타내지는 않지만 건문제와 태자 문규가 사는 천태라는 땅을 이롭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영웅의 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철의 ‘충’은 건문제가 영락에게 빼앗긴 임금의 자리를 되찾고, 적대자를 몰아내는 데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철이 건문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적대자와 직접적으로 맞붙는 싸움에서 사용하는 신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영웅소설 속 영웅적 인물들은 임금을 지키고 혼란한 국가를 바로 잡기 위해 전투를 치렀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갑옷과 투구, 장검, 병서 등을 갖추었다. 이것이 영웅적 인물에게 필요한 신물이었다. 반면 정철에게는 갑옷과 투구 대신 석장과 갑마, 운니가 있었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검은 요괴를 물리치는 데 쓰이고, 건문제의 충신을 살리는 데 쓰였다.³⁹ 또한, 건문제와 관련하여 정철이 받은 신물들은 건문제의 안위를 지켜줄 것들이었다. 따라서 ‘충’의 실현을 돕는 신물들은 건문제와 태자 문규가 현실 세상과는 다른 그들이 안주할 새로운 땅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거나 건문제 자손들의 번영을 위한 것들로 나타난다.

39 정철이 검을 쓰는 때는 요괴를 물리치는 때이거나 도둑의 무리와 싸울 때이다. 도둑의 무리에게 잡혀있던 건문제의 신하 일가를 구해 줄 때 도둑의 우두머리인 나탁과 검술 대결을 하지만 이들은 검술을 논하는 데 집중한다(총서 10권: <삼강명행록> 권지십오, 774-775쪽).

Ⅲ. <삼강명행록>에 나타난 영웅성과 신물의 의미

<삼강명행록>에서 정철의 영웅적 행위는 모친을 찾아 '효'의 가치를 이루어 가문을 완성하는 것과 정씨 가문이 충성한 건문제의 안위를 지키는 데서 나타난다. 보통의 영웅적 인물은 국가가 혼란에 빠지거나 임금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를 재건하고 임금의 자리를 지켜낸다. 이때 미완의 영웅성을 보완해 주는 것이 각종 신물이었으며 나라를 위한 '충'을 실현하여 개인의 영화를 누리는 데 크게 쓰인다. <삼강명행록>에 나오는 여러 신물들도 정철의 영웅성을 돕는데 '충'보다는 '효'를 완성하는 데 그 쓰임이 강조된다. 그렇다면 <삼강명행록>에서 정철의 영웅성을 드러내는데 신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첫째, <삼강명행록>에 나오는 신물은 '충'을 이루기 위한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보다는 '효'의 가치를 이루는 도구로 강조된다. 기존 영웅소설 속 신물들은 영웅성이 부족한 인물들의 능력을 보완하거나 향상시켜 영웅적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일조하였다.⁴⁰ <삼강명행록>의 신물 역시 정철의 능력을 높인다. 한편, 기존 영웅소설 속 영웅들이 부모와의 분리를 거쳐 조력자를 만나 수학하고, 때를 기다려 영웅으로 거듭난 것과 달리 <삼강명행록>에서는 정철이 고난을 겪은 후 조력자를 만나 잠재된 영웅성을 이끌어 내는 서사는 크게 강조되지 않는다.⁴¹ 서사 초반 정철이

40 기존 영웅소설에의 신물은 미미하게 나타나거나 주인공의 자력에 의해 획득되어 영웅행각에 일조하였으나 후대에는 생래적 능력이 없는 주인공의 영웅적 삶에 구원자와 보조도구를 획득함으로써 영웅의 부족한 능력을 배가해 주는 계기로 이용되었다고 하였다(안기수, 앞의 책(2004), 338쪽).

41 한길연은 영웅소설과 장편의 대하소설에서 남녀 주인공의 환상 체험의 차이를 향유층의 취향 문제로 꼽았다. 즉, 영웅소설 속 주인공은 '결여태'의 존재로 남주인공이 순식간에 영웅으로서의 질적인 비약을 하기 위해서는 환상 공간과 이인을

겪는 어려움은 정난지변으로 인해 부모와 헤어진 데서 기인하고, 이때도 조력자의 이른 도움으로 정철은 큰 고난 없이 모친을 찾아 나아갈 길이 빠르게 결정되었다. 이런 서사의 진행으로 건문제가 영락에 의해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의 충신이었던 정씨 가문 사람들이 난리 속에 헤어졌어도 정철은 유리결식하거나 영락의 명을 따르는 무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즉, 정철의 영웅성은 건문제의 복위와 관련된 서사가 아닌 모친을 찾는 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정철이 얻게 되는 신물은 태생적으로 부족한 그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지 모를 모친을 찾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쓰인다.

둘째, 정철이 '충'의 실현을 이루는 과정에서 얻는 신물은 건문제와 충신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며 이때 정철의 힘이 환상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 일례로 정철은 건문제의 천하주유(天下周遊)를 위해 석장으로 용의 여의주를 때려 천마로 변한 용을 사로잡는다.⁴² 정철은 천마로 변한 용의 근본을 밝히면서 건문제를 위해 새끼를 낳아줄 것을 부탁한다.

만나 수학하는 것이 요청되는데 이러한 장치로 인해 독자들이 사건 진행에 동조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상층에서 향유한 대장편소설의 경우 이계 공간이나 이인에게 수학하는 장면이 없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주인공은 이미 필요한 자질을 두루 갖춘 인물이기 때문이며 유가주의에 충실한 상층 남성들이 이계에서의 수학하는 장면을 깔끄러워 해 가급적 생략을 했을 것이라고 하였다(한길연(2008), 앞의 논문, 100-102쪽). <삼강명행록>도 대장편소설의 주류로서 영웅성을 표현해내는 방식은 상층 독자의 취향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42 총서10권: <삼강명행록> 권지십사, 556-557쪽. “길히셔 심이 텃마를 여르문더 닐오되 “네 비록 물이 되여시나 근본이 농신이라 내 엇디 오래 펴박히리오 건문 텃치 이제 운남의 겨시니 시세 불헝하야 이제 손국하야 겨시나 보턴지하와 솔토지디의 창칭신기가 뉘 데의 신해 아니리오 네 흥번 가 귀경하고 내 귀특호 오식 즈마를 여더 줄 겨시니 반년만 머무러 취종을 하여 준 후 명년 춘하 간의 내 너를 드러 즉시 악와슈의 가 여의주를 주어 도라보낼 겨시니 나는 텃하의 신을 두는 대당뵈라 엇디 너를 소길니 이시리오”

정철은 용신에게 천마로서의 일을 다하면 악와수로 보내주겠다는 약속까지 한다. 이것은 정철이 용신을 때려잡을 만큼 신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철은 천마에게 건문제가 때를 잘못 만나 운남에 있으나 온 나라의 것이 모두 건문제의 신하임을 말하며 천마로서 새끼를 낳는 것이 건문제를 위한 일임을 강조한다. 결국 정철이 천마를 잡은 것은 ‘충’의 한 표현으로 건문제와 그를 따르는 충신들이 중국 곳곳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도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정철은 건문제와 그의 충신들이 안전하게 천하를 주유하고 그들의 안위가 보장될 새로운 땅을 찾는 것에서 ‘충’을 실현한다. 현주 선백이 태자 문규에게 준 천서로 천태를 다스리는 것을 정철이 돕고, 천마에게 새끼를 낳아줄 것을 부탁하여 건문제의 주유(周遊)를 돕거나 교룡을 처치해 동정 용왕에게서 받는 신물이 건문제와 문규를 돕게 되는 것은 정철이 ‘충’을 실현하는 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삼강명행록>에서 정철이 신물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그가 유교적 이념을 고수하는 인물임을 강조한다. <삼강명행록>에서 정철이 얻는 신물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효’와 ‘충’을 이루는데 쓰였다. 정철은 신물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교와 불교를 아우르면서도 결코 유교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삼강명행록>에서 신물 및 용마, 교룡 등의 환상계 존재들은 정철의 전신(前身)이 ‘문창성군’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그가 도술을 부리거나 신물을 얻고 쓰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킨다.⁴³ 그런데 <삼강

43 김수연은 문창성이 문창계군으로 인격화·신격화되는 과정에서 ‘문창성’ 본래의 숭문(崇文)외에 ‘충효’의 서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문창성에는 유교적 가치관과 도교적 상상력이 결합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서 <완월회맹연>의 정잠이 충신과 효자의 동일한 인물을 겸하였다고 하였다(김수연, 「고소설의 ‘문창성’ 수용과 유(儒)·도(道) 경계의 사상 융합형 군자: <완월회맹연>의 ‘정잠’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49집(2020), 121-123쪽). 이처럼 <삼강명행록>의 정철이 문창성

명행록)에서 정철이 신물을 얻고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효’와 ‘충’의 유교적 이념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사부인으로부터 정철로 전해진 ‘취보경’은 사부인과 정철이 ‘충절’과, ‘효’, ‘인의’가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을 찾았다. ‘취보경’은 사부인의 동생 사시랑이 충절이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오직 충·효·열의 이념을 지킬 수 있어야 신물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후 파사국 노인이 정철에게 보모를 준 이유도 그가 인의가 있고 덕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철이 갖게 되는 신물들은 취보경처럼 신물 자체가 정철을 직접 선택하기도 하고, 중국 전역을 돌던 중 그의 능력과 인물됨을 알아본 존재들이 신물을 주는데 이 과정에서 정철이 유교적 인물임이 지속적으로 드러난다. 즉, 신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는 유교적 이념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철의 영웅성은 현실세계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삼강명행록>에서 정철의 영웅적 행위는 유교적 이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강조된다. 정철은 사천성 기주부에서 달뜨는 광주리와 표주박을 주는 노인에게 자신이 이인에게서 천록비기와 둔갑천서, 천문지리, 병법 모략을 배웠다고 밝힌다. 노인은 정철이 문장 학식뿐만 아니라 삼교(三教)에도 능하고 성인의 도에 이르렀다고 칭송한다. 즉, 정철이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므로 정철이 여러 신물들을 획득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정철도 자신이 유교적 인물임을 강조하며 유교이념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고승과 도사를 만나 불경과 단학을 강론하면서도 잡술을 많이 아는 것이 군자의 정도가 아닐까 우려하여 방사(方士)는 상접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정철과 대화를 나누던 노인은 정철의 천품에 대해 ‘유되

임을 강조한 것도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인물에 초월적 능력을 구비한 도교적 인물임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본원이라 엇지 감히 방외지술이 그 덕을 누흐리오'라는 말을 한다.⁴⁴ 이는 정철이 비록 신선의 술법인 도술을 부리지만 그가 유교적 이념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철이 신물들을 접하고 필요로 했던 이유는 모친을 찾기 위함이었고, 그가 처음 얻는 신물들도 대부분 모친을 찾는데 필요한 것들이었다. 이는 도교와 불교적 특성을 지닌 신물이 유교적 이념에 흡수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신물이 삼강의 이념을 완성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정철의 도술과 신물들이 유교적 이념 안에 포용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삼강명행록〉은 중국 지리서인 『해내기관』과 정난지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의 중국지역 및 중국 밖 세계까지의 유람을 담고 있다. 특히 정난지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건문제를 임금의 자리로 되돌리고, 건문제를 따르는 정씨 가문의 번영을 다룰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정철의 영웅성 발휘에 필요한 대부분의 신물들은 무너진 국가와 위협받는 임금을 구해 가문을 번성시키는 데 쓰이기 보다는 '효'를 완성하고 건문제의 또 다른 천명을 지켜주는 데 사용되었다.

이처럼 〈삼강명행록〉에 나타나는 신물들은 정철이 유교 이념 중 '효'를 대표하는 인물임을 강조하면서 '효'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는 유교적 인물이 신물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4 총서 12권: 〈삼강명행록〉 권지이십오, 658-661쪽.

IV. 맺음말

〈삼강명행록〉은 기존 대장편소설과 다르게 ‘정난지변’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해내기관』이라는 지리서를 통해 중국 명승지와 고적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 안에서 주인공들이 지닌 유교적 이념을 강조한다. 이때 남성주인공인 정철은 효를 이행하기 위해 도술을 부리고 신물을 획득하여 헤어진 모친을 찾는 영웅적 인물로 변모한다.

기존 영웅소설 속 주인공이 잠재적 능력을 타고 태어나 적대자 또는 국가의 위기로 인해 위기를 겪고, 구국의 영웅이 되어 가문의 번영을 누리는 것과 달리 〈삼강명행록〉의 정철이 겪는 고난과 위기는 모친과의 이별에 기인하며 그가 이루려는 바는 모친을 찾아 가문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다. 정철이 보여주는 영웅성은 ‘효’를 이행하는 과정과 ‘충’을 실현하는 과정에 나타난다. 정철의 영웅성이 기존의 영웅소설 속 영웅들과 변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물이다. 영웅소설에서 신물은 대개 싸움에 필요한 것으로 주인공의 능력을 향상시켜 전투 능력을 끌어올리고 싸움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삼강명행록〉의 신물은 전투 능력을 끌어올리거나 영웅적 능력을 배가시켜주는 데 쓰이기보다 유교적 이념을 완성하는데 쓰인다.

먼저 신물은 정철이 ‘효’를 완성하는 데 쓰인다. 〈삼강명행록〉에 나오는 신물 대부분은 정철이 모친 사부인을 찾는 과정에 얻게 되는데 이 역시 사부인을 만나는 마지막 시험 과정에 모두 쓰인다. 신물들은 그가 유교적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주어지는 것이었다. 정철이 모친을 만나는 곳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로 정철이 기장군 마을을 지키는 역사에게 신물을 주고, 시험을 받아 문을 통과하는 통과례는 정철의 영웅적 자질을 인정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철이 가지고 있던

신물은 정철 개인의 영웅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쓰이기보다는 ‘효’의 완성을 이루어 내는 도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정철이 가진 신물은 정철의 ‘충’을 나타내는 데도 쓰인다. 정철은 영락에게 빼앗긴 건문제의 자리를 되찾는 것으로 충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삼강명행록>이 정난지변을 배경으로 하는 서사로, 건문제의 ‘천명’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데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정철의 ‘충’은 건문제와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천태’라는 곳에 그들을 모이게 하는 데서 나타난다. ‘충’과 관련된 서사에서 정철의 영웅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건문제의 명에 따라 동정호를 어지럽히던 교룡을 죽이고 그 은혜로 건문제와 정철이 신물을 받았다는 데서 간접적으로 ‘충’의 이념을 드러낸다. 천태에서 현주 선백이 문규에게 정철이 있으므로 문규가 천태를 다스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에서 정철이 비범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정철이 새로운 땅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의 ‘충’이 발현된다. <삼강명행록>에서 신물은 정철의 영웅성을 도와 유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데 활용된다. 이에 <삼강명행록>의 신물과 정철의 영웅성이 보이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영웅소설 속 인물들이 부모와의 분리를 거쳐 고난을 겪고 조력자를 만나거나 신물을 얻어 영웅적 인물로 성장한 것과 달리 <삼강명행록>에 등장하는 조력자들로부터 얻는 신물들은 정철을 영웅적 인물로 만들기 위한 서사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둘째, 정철의 영웅성은 모친을 찾는 과정에 발현되며 이때 얻은 대부분의 신물의 힘은 ‘충’보다는 ‘효’를 완성하는 데 쓰인다.

마지막으로 <삼강명행록>에서 정철이 신물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그가 유교적 이념이 강한 인물임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이것은 정철이 사용하는 도술과 신물들이 유교적 이념 안에 포용되어 있음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삼강명행록>의 등장인물인 정철의 영웅성을 그가 얻는 신물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철이 얻는 대부분의 신물이 '효'를 완성하고 '충'을 실현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삼강명행록>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영웅성이 유교적 이념을 철저히 고수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삼강명행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31권 31책.

2. 단행본

김기동편, 『한국고전소설총서』 7-13권. 태학사, 1983.

김석출 구연·이경하 역주, 『바리데기』. 돌베개, 2019.

민족문학연구소, 『한국고전문학작품론6』. 휴머니스트, 2018.

안기수,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서, 2004.

이수봉, 『한국가문소설연구』. 경인문화사, 1992.

Arnold Van Genneep(지), 서영대(역), 『통과의례』.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6.

3. 논문

장준수, 「〈바리데기〉에 나타난 서사 유형 고찰」. 『인문학연구』 제55집 2호, 2016, 1-26쪽.

김동욱, 「고전소설의 정난지변(靖難之變) 수용 양상과 그 의미」. 『古小說研究』 제41집, 2016, 311-340쪽.

김수연, 「고소설의 '문창성' 수용과 유(儒)·도(道) 경계의 사상 융합형 군자: 〈완월회맹연〉의 '정잠'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49집, 2020, 105-140쪽.

김종철, 「19C 중반기 장편 영웅소설의 한 양상: 「옥수기」, 「옥루몽」, 「육미당기」를 중심으로」. 『韓國學報』 11권 3호, 1985, 88-108쪽.

문용식, 「〈삼강명행록〉 연구」. 『국제어문』 제13집, 1991, 343-378쪽.

민선홍, 「민담 『구렁덩덩 신선비』와 『두꺼비 신랑』의 비교」. 『口碑文學研究』 제56집, 2020, 5-34쪽.

서정민, 「〈삼강명행록〉의 창작 방식과 그 의미」. 『국제어문』 제35집, 2005, 71-95쪽.

_____, 「〈삼강명행록〉의 교양서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제28집, 2005, 351-378쪽.

_____, 「〈삼강명행록〉을 통해 본 여성의 성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2007, 361-383쪽.

임현아, 「〈삼강명행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9.

_____, 「〈삼강명행록〉의 여성 인물 연구」. 『영주어문』 제45집, 2020, 33-59쪽.

- 조동일,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東亞文化』 제10집, 1971, 165-214쪽.
- 조홍윤, 「설화 <구렁덩덩신선비>의 서사를 통해 본 '관계 맺음'의 문제」. 『구비문학 연구』 제43집, 2016, 191-230쪽.
- 한길연, 「영웅소설과 대하소설의 주인공의 환상 체험의 차이와 그 의미」. 『한국문화』 제42집, 2008, 87-107쪽.
- _____, 「대하소설의 환상성의 특징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제20집, 2010, 469-513쪽.

국문초록

〈삼강명행록〉은 31권 31책의 대장편소설로, 유교적 이념인 충·효·열을 강조하는 서사로 진행된다. 주목되는 것은 주인공 정철이 ‘효’와 ‘충’을 이행하는 가운데 그의 영웅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때 정철의 영웅성은 신물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강조된다.

신물 대부분은 정철이 모친을 찾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며, 마지막 모친을 찾기 위한 통과의례의 예물로 쓰인다. 더불어 신물은 임금의 자리를 빼앗긴 건문제의 안위를 위해 쓰이면서 정철의 ‘충’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삼강명행록〉에서의 신물은 정철의 영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정철이 유교이념을 완성하는 것을 돕고 동시에 그가 유교적 인물임을 밝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투고일 2021. 9. 22.

심사일 2021. 9. 24.

게재 확정일 2021. 11. 10.

주제어(keyword) 삼강명행록(Samgangmyeonghaengrok), 충·효·열(Loyalty·Filial Piety·Chastity), 신물(Mystical Things), 영웅성(Heroism), 통과의례(Rite of Passage)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ifestation of Heroism and Mystical Things in “Samgangmyeonghaengrok”

Lim, Hyun-a

“Samgangmyeonghaengrok” is a very large novel consisting of 31 volumes and 31 books, and it proceeds as a narrative emphasizing the Confucian ideology of ‘loyalty’ - ‘filial piety’ - ‘chastity’. What is noteworthy is that Jeong Cheol, the main character, performs ‘filial piety’ and ‘loyalty’, and his heroism is revealed. At this time, Jeong Cheol’s heroism is emphasized in the process of acquiring and using mystical things.

Most of mystical things are obtained by Jeong Cheol in the process of finding his mother, and they are used as a gift for a rite of passage to lastly find his mother. In addition, mystical things are used for the safety of Emperor Jianwen, who has been deprived of the king’s position, and also represents Jeong Cheol’s ‘loyalty’.

As such, the mystical things in “Samgangmyeonghaengrok” appear to help Jeong Cheol complete his Confucian ideology, rather than improve Jeong Cheol’s heroic abilities, and at the same time reveal that he is a Confucian character.